

시인의 마을



은혜

기도할 수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깊숙이 숨어 있다가 기웃거리는 어설픈 마음처럼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바보처럼, 목상하고 기도하는 일상에 충실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기도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강건한 믿음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뭐래도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은혜입니다
세상의 고집과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저만큼, 꿈과 희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 박여범 시인, '은혜' 전문 -

시시를 담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다. '다시 조만간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답은 없다. 발길을 내딛기가 서운하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부모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깊숙이 숨어 있다가 기웃거리는 어설픈 마음처럼, 작은 것이 힘이 될 때가 있다. 기도가 그렇다. 은혜로운 삶을 알지 못한다. 기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은혜 안에 사는 건강한 삶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기도할 수만 있어도 행복한 그 길에 저만큼, 꿈과 희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오고,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자. 부모님의 삶이 기도도 준비하는 하루였듯이.....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반도체 산업 전망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제외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렵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

기'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세계 반도체의 60.5%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다.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서버 등 상당수 전자제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 시장이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위시한 신기술의 부상도 중요하다.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서예가 산민 이용

전북 김제 출신 산민 이용 서예가가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는 60여 년간 다져온 작가의 예술세계와 끊임없는 창작 열의를 응축시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는 평이다.

출품작은 예서법화경(길이 38m, 7만자), 금문법화경(길이 35m, 7만자), 붓, 청춘예찬 등 63점이다. 산민 이용 선생은 한국 서예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실제로 서예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와 창작에 전념했다.

서예정신을 담은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해 후학들에게 지침서가 됐다. 그는 심오한 작품세계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현대서예협회 이사장으로서 국내 초기 현대서예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세계에서전북비엔날레를 탄생시켰다. 집행위원장과 총감독으로서 1997년 제1회부터 2008년까지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세계 미술계에 한국 서예의 위상을 널리 알리

는데 크게 공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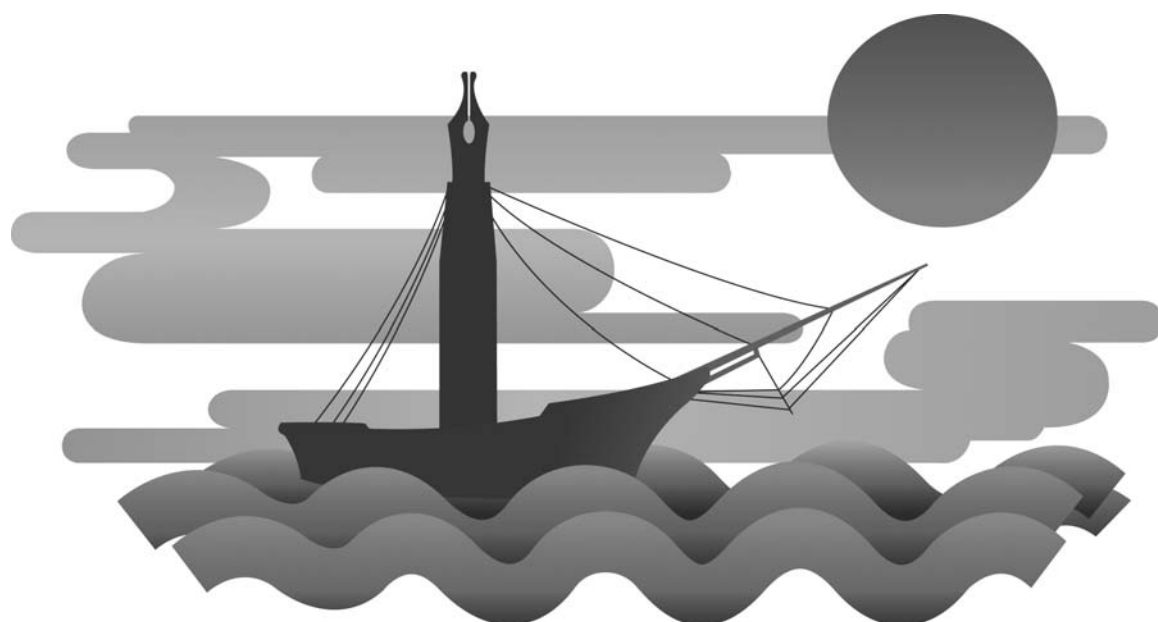
산민 이용 선생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이며, 개인전 19회를 비롯해 예술의전당, 조선일보미술관, 이람미술관 등의 초대전, 동경박물관·베를린국립박물관·북경미술관 등지에서 전시 활동 600여 회를 거졌다.

산민의 작품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전통서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체를 정립했다.

중기에는 서화동원(書·同原)을 기조로 한 '현대서예 운동'에 앞장섰다.

금문은 청동기에 새긴 명문(銘文)을 말한다. 한국 서예에서 금문서예의 부각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선도한 작가로 산민을 꼽는다.

예서시담, 한묵극남, 서예가관, 금문전자문, 소전전자문, 7체천자문·금문, 금문 채근담, 한시 300수 I, II, 명문100선, 금문총서·아계부의 8종 5권, 법화경·예서, 금문편 등을 펴냈다. 서예대가 산민 이용 선생의 변함없는 정진(精進)을 기대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